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06-21 16:31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여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수원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21일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희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수원시 신중년들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근로자·구직자를 위한 노무·법무 분야의 전문상담 연계 △양 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기초 사업으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신중년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후 주기적으로 노무상담을 진행해 신중년들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새로이 노동환경에 진입하고자 준비하는 수원시 신중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원시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